

칸트의 초월적 통각 이론에서 자아의 동일성에 대한 의식

강지영*

【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칸트의 초월적 통각 이론에 근거할 때 자신의 동일성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다. 필자는 “통각의 분석적 통일”이 “통각의 종합적 통일”에 의해 가능하다는 칸트의 테제(KrV B133~4)의 의미와 함축을 해명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답할 것이다. 필자의 답변은 얼핏 보기에 초월적 통각에 대한 ‘기능주의적 해석’과 유사하나, 통각의 분석적 통일과 종합적 통일의 관계에 대한 해석에서 변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에 의해 칸트에서 (자기)의식의 “수적 동일성”(KrV A113)과 “일관된 동일성”(KrV A116)은 선형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현상들을 대상과 관련해서 종합하는 “기능” 혹은 “활동”의 결과물이라는 것이 해명될 것이다(KrV A108). 이는 자아의 동일성과 대상의 통일성이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다는 칸트의 초월철학적 근본 통찰을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

【주제어】 임마누엘 칸트, 초월적 통각, 자기 동일성, 자기의식, 통각의 종합적 통일, 통각의 분석적 통일

* 서울대학교 철학과

** 논문을 수정할 때 익명의 심사위원님들의 조언에 큰 도움을 받았다. 특히 “자아의 동일성 의식”이라는 표현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을 지적해주신 것, 논지 전개에 불필요한 문단들을 지적해주신 것에 큰 도움을 받았다. 이 자리를 빌려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한다.

I. 문제제기

“나는 대상들이 아니라 대상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방식을, 그것이 선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한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모든 인식을 초월적이라고 부른다. 그러한 개념들의 체계는 초월철학이라 일컬어 질 것이다.”¹⁾

단어 “초월적”과 “초월철학”의 의미를 규정하는 이 인용문은 칸트의 초월철학적 작업이 가진 근본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 인용문에 따르면 초월철학은 대상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인식을 다룬다. 즉 초월철학은 인식론이며, 특히 인간의 대상인식이 가능하기 위한 선형적 원리와 조건들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초월철학이라는 인식론적 작업에 의해 칸트는 “우리가 사물에 관하여 선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사물들 안에 투입한 것뿐이라는 근본적으로 변화된 사고방식”²⁾이라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제시한다. 이러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은 주체와 객체 간의 인식적 상호의존성이라는 함축을 가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칸트의 초월적 통각론에서 자아의 동일성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필자는 『순수이성비판』의 초월적 연역 B판에 제시된 통각 이론을 검토하면서 대상의 통일성과 자아의 동일성의 관계를 탐구할 것이다. B판의 통각 이론에 따르면 “나는 사고한다Ich denke”의 동일성은 오직 직관의 잡다가 종합됨으로써 생겨난 통일성을 의식함으로써 가능하다³⁾. 칸트의 이러한

1) KrV B25. 칸트의 원전을 인용할 때 『순수이성비판 Kritik der reinen Vernunft』(약호 KrV)은 제1판(1781년)과 제2판(1786년)을 각각 알파벳 A와 B로 표기한 뒤 면수를 밝힌다. 한국어 인용은 『순수이성비판 1』(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2014))을 따랐다.

2) KrV BXVIII.

3) KrV B133~4.

테제는 자기의식의 동일성과 대상의 통일성 의식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는 초월철학적 함축을 가진다.

그런데 이러한 함축은 통각의 통일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간과되어 온 부분이다. 기존의 연구는 대상인식에서 초월적 통각이 어떤 역할을 하며 왜 필요한지를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 그 결과 대상 인식과 자기의식 간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칸트의 초월적 자기의식(초월적 통각) 이론은 의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아와 자기의식이 가능하기 위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객체적 자아 간의 딜레마를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초월적 통각이라는 자기의식은 자아관련성뿐만 아니라 대상관련성을 동반하는 복잡한 인지적 산물을 가리킨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칸트의 초월적 통각론이 가진 초월철학적 함축을 명료하게 하는 것에 기여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첫째로 기존의 연구동향을 간략히 정리하여 본 연구의 위치를 자리매김하고(2절), B판 연역에 제시된 통각론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개념들을 해설한 뒤(3절) B판 연역의 통각론 부분을 독해하여 자아의 동일성과 대상의 통일성 간의 관계에 대한 칸트의 주장을 명시화하겠다.(4절)

II. 연구 동향

『순수이성비판』의 초월적 연역 부분에 제시된 칸트의 통각 이론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크게 세 가지 입장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해석들은 칸트의 통각 이론이 흄에 대한 반론이라고 보는 점에서는 일치하나⁴⁾, 흄의 회의들 가운데 무엇이 대한 반론인지와 관련해서 차이를 보인다.

잘 알려진 한 해석에 따르면, 칸트의 통각이론은 심적 상태들(표상들)을

4) 칼 아머릭스(Karl Ameriks)(2006)와 피에르 켈러(Pierre Keller)(1998)는 칸트의 통각 이론을 흄에 대한 반론으로 보는 해석에 반대한다.

자아에게 귀속시키는 기준에 대한 이론이다⁵⁾. 다시 말해 통각 이론은 표상을 종합할 때 어떤 지각은 나의 것으로, 다른 것은 나의 것이라 인지하지 않을 때 의거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칸트의 답변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칸트의 통각 이론은 표상들 간의 필연적 통일성에 대한 흄의 회의에 맞서 표상들 간의 “필연적 연관”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월적 통각이 표상들 간의 필연적 연결을 가능하게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칸트는 지각의 차원에서는 표상들 간의 필연적 연관이 확보될 수 없다고 보았으나, 칸트는 흄과 달리 주체의 능동적인 작용을 인정한다. 주체의 “자발성의 활동”을 뜻하는 초월적 통각이 대상의 개념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며, 표상들에 상응하는 대상의 개념이 표상들 간의 필연적 연결을 보증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해석에 따르면, 칸트의 통각 이론은 인식 대상의 동일성에 대한 흄의 회의에 대한 반론이다⁶⁾. 시간 t1에서의 대상A와 시간 t2에서의 대상B를 서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흄은 두 대상 간의 동일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둘 사이에는 오직 연상적 유사성만이 있다고 설명한다. 두 번째 해석의 지지자들은 칸트에서는 종합된 지각의 모임들이 통각의 통일성에 의해 시간이 흘러도 지속되는 동일성을 가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우리는 우리의 인식방식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물 자체가 동일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현상의 차원에서는 통각의 통일성에 의해 하나의 동일한 사물의 규정을 보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순수이성비판』의 A판 연역의 주요 목표들 가운데 하나가 수적 동일성 표상의 필연성을 증명하고자 한 것이라는 사실에 의해 지지된다. 그러나 이 해석들은 해당 텍스트에서 문제되는 수적 동일성 표상이 자아의 수적 동일성 표상이며, 해당 논증이 자아의 수적 동일성을 토대로 대상의

5) Bunnet (1974), Strawson (1975).

6) Howell (1992), Rosefeldt (2000).

동일성을 보증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다른 해석에 따르면 칸트의 통각 이론은 자아의 동일성에 대한 흄의 회의에 맞선 것이다⁷⁾. 내적 지각에 대한 흄의 견해에 따르면, 상이한 내적 표상들에서는 하나의 동일한 주체 ‘나’를 지시하는 일관된 인상을 찾을 수 없다. 칸트는 자아의 동일성에 대한 흄의 회의에 반대하며 통각 이론을 통해 경험이 체계를 이루며 하나의 주체에 대한 것으로 표상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 세 가지 해석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진다. 첫째로 이 해석들은 표상들의 결합방식에서 발견되는 질서가 우리 자신이 투입한 것에 다름 아니라는 칸트의 기본적인 통찰을 승인한다. 둘째로 이 해석들은 초월적 통각의 특징과 기능에 대해서도 유사한 이해를 보여준다. 통각의 기본 기능은 경험의 모든 요소들에 “나는 사고한다*ich denke*”를 수반하는 것이고, 통각의 통일을 지칭하는 “초월적”이라는 형용사는 통각의 통일이 인간의 대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선험적 조건이라는 것을 뜻하며, 이 때 “통일”은 주관의 형식적으로 하나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통각의 통일이 “근원적”이라는 것을 어떤 다른 표상들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세 해석은 자아의 동일성 문제와 관련해서 두 입장으로 가를 수 있다. 이 구분은 자아의 동일성을 가리키는 “초월적 통각의 통일”이 표상들의 종합적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조건인지, 혹은 그 종합적 통일의 결과로 “초월적 통각의 통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차에 근거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입장에 있는 연구자들에 따르면 “초월적 통각의 통일”은 대상인식의 출발점을 이루는 근본적인 전제이며, 칸트에서 자아의 동일성은 선험적으로 요청된 것이다. 세 번째 입장의 연구자들은 통각이론에서 자아의 동일성은 선험적으로 전제된 것이 아니라, 표상들 간의 종합적 통일을 의식함으로써 구성된 것이라고 여긴다. 거칠게 정리하자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입장은 칸트의 인식론에 경험들 전체를 포섭하는 자아의 통일성이

7) Allison (2004); Kitcher (1990, 2011); Guyer (1987); Powell (1990).

전제되어 있다고 보며, 세 번째 입장은 경험 이전에 주체의 실체적 통일성을 전제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칸트의 초월적 통각 이론을 검토하여, 칸트에서 인식 주체의 동일성 의식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해명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필자는 “통각의 분석적 통일”이 “통각의 종합적 통일”에 의해 가능하다는 칸트의 생각⁸⁾을 해설하여 이 문제에 대답할 것이다. 필자의 해석은 세 번째 부류의 연구의 ‘기능주의적 해석’⁹⁾과 근본 생각을 공유하나, 통각의 분석적 통일과 종합적 통일의 관계에 대한 텍스트 해석에서 차이를 가진다. 이후에서는 대상인식에서 자아의 동일성 의식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밝힌 B판 16항 부분을 검토하여, 칸트에서 (자기)의식의 “수적 동일성”¹⁰⁾과 “일관된 동일성”¹¹⁾이 선형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현상들을 대상과 관련해서 종합하는 “기능” 혹은 “활동”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보이겠다.¹²⁾ 이는 자아의 동일성과 대상의 동일성이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다는 칸트의 초월철학적 근본 통찰을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

Ⅲ. 대상 인식에서 “초월적 통각의 통일”의 기능과 필요성

16항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초월적 통각”과 “초월적 통각의 통일”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16항을 검토하기 전에 이하에서는 통각의

8) KrV B133~4.

9) 기능주의적 해석에 따르면 우리는 초월적 자아를 기능적으로만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초월적 자아에 대해 구체적 본성을 추론할 수 없다. 초월적 자아는 순수하게 기능적인 용어로만 이해되며 따라서 이 자아에 대한 앎은 자아에 대한 사실적 지식의 문제를 전제하지 않는다.

10) KrV A113.

11) KrV A116.

12) KrV A108.

의미를 간략히 설명하고(3.1절), “초월적 통각의 통일”과 관련해서 A판과 B판 모두에서 드러나는 근본적인 주장들을 검토하겠다(3.2절).

1. 초월적 통각의 의미

“초월적 통각의 통일”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려면 우선 칸트에서 통각의 의미를 규정해야 한다. 칸트는 통각의 정의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¹³⁾, 이 개념이 뜻하는 바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어원과 칸트의 용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각”을 뜻하는 독일어 아페르채치온Apperzeption은 본래 라이프니츠의 용어이다.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통각은 지각(외부 세계를 표상하는 모나드의 내적 상태)에 대한 의식적인 반성행위를 뜻하거나 반성 이전의 표상인 지각과 대비되는 반성적으로 의식된 표상을 뜻한다¹⁴⁾. 라이프니츠는 통각을 “자기의식”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하는데, 많은 곳에서 라이프니츠는 지각에 대한 의식과 자기에 대한 의식을 구분하지 않았다. 이는 라이프니츠가 지각에 대한 의식이 이미 표상 내용의 원천 혹은 근거인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을 포함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칸트의 통각 개념은 지각에 대한 이차적 의식 혹은 이차적 의식활동이라는

13) 귄터 쥘러Günter Zöller에 따르면 이는 『순수이성비판의 방법론 부분에 제시된 칸트 철학의 방법론적 특성(KrV A730~1=B758~9)에 근거한 것이다.(Kant-Lexikon (2015), p. 146.) 칸트에 따르면 수학적 탐구는 개념의 정의에서부터 출발하는 반면, 철학적 탐구는 개념의 정의에서 종결된다. 칸트가 통각 개념이 무엇인지 규정하지 않고 논의를 진행한 것 또한 같은 이유에서 기존의 철학적 용어가 가진 본래 의미를 보존하면서 초월철학적 내용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4) 지각과 통각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구분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은 다음과 같다.
“It is well to distinguish between perception, which is the inner state of the monad representing external things, and apperception, which is consciousness, or the reflective knowledge of this inner state, and which is not given to all souls, nor at all times to the same soul.” (G.H.R. Parkinson (ed.) (1973), p. 197)

라이프니츠의 통각 개념의 근본 의미를 보존하고 있다. 칸트의 통각은 넓은 의미에서 자기의식을 뜻한다. 『순수이성비판』 B판의 68쪽에서 칸트는 “나에 대한 가장 간단한 표상 die einfachste Vorstellung des Ich”인 “나 자신에 대한 의식 das Bewusstsein seiner Selbst”를 통각이라고 지칭한다.

통각이 넓은 의미에서 “자기의식”일 때, “초월적 통각”은 초월적(인식론적) 맥락에서 고찰된 자기의식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칸트에게 “초월적 통각”은 대상 인식과 관련해서 주관의 내적 행위 혹은 자발성에 대한 의식을 뜻하는데, 이는 시간상에서 자신의 심적 상태의 변화에 대한 주관의 의식을 가리키는 경험적 통각 혹은 내감과 대비된다¹⁵⁾.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 칸트의 통각은 “나는 사고한다 Ich denke”에 의해 나의 모든 표상들을 하나의 의식에 귀속시키는 능력을 뜻한다.¹⁶⁾

그런데 칸트가 지각 perception에 덧붙여지는(ad) 의식인 통각 Apperzeption을 “자기의식”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가 염두에 둔 것은, “나는 사고한다.”가 모든 표상에 동반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¹⁷⁾. 이 생각에 따르면 나에게 인식적으로 의미 있는 표상은 그것이 자아를 지향하는 의식을 표현하지 않거나 명시적으로 “의식에 대한 의식”이 아니더라도 자아의식이다. 왜냐하면 이 일차적 상태는 “나는 사고한다.”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차적 의식 상태는 “나는 x를 사고한다.”라는 형태에 의해 구성될 것이고, 따라서 자각의 상태가 이미 나 자신의 의식의 사례라는 것은 참이 된다.

대상 인식에서 “초월적 통각의 통일”의 기능과 필요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 전에, 칸트의 통각이론에 대해 잘 알려진 오해 하나를 해명하겠다.

15) Anthro. VII p. 134 각주; KrV A103=108, B154, B159.

16) KrV A22=B37, B375; Anthro VII p. 134 각주; Metaphysik Mrongovius XXIX p. 878. <형이상학 강의록 Metaphysik Mrongovius>에 있는 아래의 구절은 좁은 의미의 통각 개념을 명료하게 규정하고 있다: “통각 혹은 표상들을 자기 자신과 관련시키는 능력 Apperzeption oder das Vermögen, die Vorstellungen auf sein Selbst zu referieren” (Metaphysik Mrongovius XXIX p. 878.)

17) KrV B131 이하.

헨리히의 지적 이후 많은 연구자들은 칸트가 통각을 자기의식뿐만 아니라 의식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문제삼는다¹⁸⁾. 자기의식을 의식과 동일시하는 칸트의 용법은 언뜻 보기에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둘은 각기 다른 것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자기의식은 자신의 심적 활동에 대한 의식 혹은 그 심적 활동을 담당하는 것의 존재에 대한 의식을 가리킨다. 한편 의식은 1) 색깔이나 고통 등에 대한 감각을 뜻하는 감각적 의식 혹은 2) 특수한 개별 대상이나 어떤 개별 사태를 의식하는 일차적인 지향적 의식을 가리킬 수도 있고, 3) 자기 자신의 심적 상태에 대한 반성적 의식이나 4) 일인칭 단수 “나”로 표현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적 의식을 가리킬 수도 있다. 그런데 자기의식과 의식을 동일시함으로써 칸트는 2),3),4) 유형의 의식이 모두 “자기의식”이라 본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칸트의 용법은 의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칸트의 이해에 근거한 것일 뿐이다. 칸트는 “의식das Bewusstsein”을 “다른 표상이 내 안에 있다는 표상eine Vorstellung, dass eine andere Vorstellung in mir ist”으로 이해하고 있다¹⁹⁾. 이는 초월적(인식론적) 맥락에서 의식이 무엇인지를 고려한 것일 뿐이다.

2. 초월적 통각의 통일

통각의 통일Einheit der Apperzeption은 『순수이성비판』의 A판과 B판 모두에서 잡다의 종합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에서 등장한다. 칸트에 따르면 감각의 소여 자체에서는 특정한 질서나 배열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소여들에서

18) Henrich (1976). 예를 들어 칸트는 통각의 근원적·종합적 통일을 지성사용의 최고 원칙으로 도입한 뒤 §20에서 논의를 일단락하면서 범주가 "하나의 의식"(KrV B143)에 직관의 잡다를 총괄하기 위한 조건이라 주장한다. 또한 통각의 분석적 통일을 설명하는 각주에서 “통각”이라는 표현 대신 “의식”의 분석적 통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KrV B133 각주)

19) Logik IX p. 33.

어떤 특정한 질서를 발견하며, 그 결과 세계는 우리에게 인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지속적이고 연장적인 실체들의 총체로 나타난다. 따라서 소여들이 보여주는 질서는 우리가 소여에 투입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이 사태에 대해 칸트는 지성의 개념이 직관의 잡다를 종합할 규칙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칸트에 따르면 개념에 따르는 상상력의 종합만으로는 우리가 인식하는 “하나의 경험”²⁰⁾을 설명할 수 없고, 하나의 경험이 가능하려면 보다 상위의 조건인 통각의 통일이 필요하다.

잡다의 통일을 가능케 하는 보다 상위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칸트의 주장은 일견 이해하기 어렵다. 개념이 직관의 잡다를 종합할 규칙을 주고²¹⁾, 이를 통해 잡다들이 하나의 대상과 관련되는데 어째서 개념에 의한 상상력의 종합만으로는 잡다들의 통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예를 들어 우리가 표상 A, 표상 B, 표상 C를 R이라는 관계에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표상할 수 있는 것은, 표상 A, 표상 B, 표상 C가 대상 O의 부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대상 O의 개념이 표상 A, 표상 B, 표상 C를 특정 관계로 종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왜 칸트는 지성의 개념과 상상력의 종합만으로는 표상들이 하나의 대상으로 통일될 수 없다는 것인가?

칸트에 따르면 표상들의 통일성은 개념 외에 “그것들의 종합에서의 의식의 통일”을 요구한다²²⁾. 이 때 칸트의 생각은, 표상들의 통일이 가능하려면 종합되는 표상들이 하나의 의식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표상들이 하나의 대상 안에 결합되었다고 생각되는 일이 가능하려면,

20) KrV A111.

21) 예를 들어 물체의 개념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할 때 따를 규칙의 역할을 한다. 물체의 개념은 그것이 상당 시간 동안 지속하는 실체이며, 폐쇄된 표면으로 둘러싸여 있어 앞면, 뒷면, 외부와 (속이 차 있거나 비어있는) 내부를 가지고 있고, 규정 가능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속성들은 변화할 수도 있다는 규칙을 준다. 그 결과 우리가 특정한 시점에서 어떤 것의 앞면만을 볼 때 우리는 동시에 그것이 단단하고 뒷면과 내부를 갖고 있다는 것 등 까지를 예기한다.

22) KrV B137, B131 각주, A102, A103, A108, A113, A123~4.

우선 표상들을 인지하는 의식이 통일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히 어떤 대상 O의 여러 측면에 대한 표상들(대상 O를 위에서 보고 얻은 표상, 옆에서 보고 얻은 표상 등)을 여러 개의 의식들이 각각 가지고 있다면 대상 O라는 복합체에 대한 의식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²³⁾

이제 어떤 이유에서 칸트가 개념에 따르는 상상력의 종합만으로는 잡다의 통일이 가능할 수 없으며 보다 근본적인 조건으로 의식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점은 흄의 인식론에서 간과된 것이다. 흄은 표상들의 다발이 있다는 것을 일단 가정한 뒤 그 다발을 묶는 방식을 탐색한다. 그러나 칸트는 도대체 어떻게 표상의 다발이라는 것이 주어질 수 있는지를 묻는다. 흄의 견해대로 마음이 관념의 다발일 뿐이라면, 직관에 주어지는 것들이 하나의 주관이 아니라 서로 다른 주관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 다채 다양한 자기를 가지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이기”²⁴⁾ 때문이다²⁵⁾. 다시 말해 흄은 개별적이고 파편적인 지각의 차원만 생각했으며, 개별 지각들의 통일을 가능케 하는 초월적 의식의 차원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초월적 관점을 채택하면 경험과 경험 대상들은 ‘우리 안에²⁶⁾’ 있는 일련의 표상들로 간주된다. 또한 자아의 동일성

23) Dicker (2004), p. 96; Kitcher (1990), p. 101.

24) KrV B134.

25) 칸트에 따르면 경험이 일어나려면 경험의 소유자가 경험을 두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첫째로 경험의 소유자는 경험을 자신의 경험으로, 즉 동일한 한 사람의 연속적 상태로 보아야 한다. 둘째로, 경험은 적어도 일부는 외부세계에 대한 지각, 대상에 대한 지각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두 관점은 연결되어 있다. 어떤 사람이 경험 중 일부를 외부 세계 혹은 대상에 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는 어떤 경험도 가질 수 없고,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경험으로 의식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26) 칸트에서 “외부의” 혹은 “우리 안에”라는 단어는 경험적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 초월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경험적으로 보면 이 단어들은 시/공간적 위치를 지시한다. 외부 대상은 공간상에 존재하고, 나와 분리되어 있으며, “마음 안에” 있는 일정한 심적 실체들인 관념들과도 구분된다. 초월적으로(인식론적으로) 보면 “외부의”, “우리 안에”라는 단어들은 해당사태가 인식주관에 의존하는지 아닌지를 표현한 것이다. 초월적으로 볼 때 공간은 직관

은 그 표상들의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인 근거로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초월적 통각의 통일은 모든 사고와 경험의 초월적이고 형식적인 조건이다.

이러한 초월적 통각의 근본 기능은 주어진 표상들을 지성의 기능들에 의해 “하나의 의식”²⁷⁾ 혹은 “하나의 경험”²⁸⁾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의 경험”, “가능한 경험 일반”²⁹⁾, “의식의 시종 일관된 통일”³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칸트가 자아 의식적인 한 사람의 모든 경험을 결합하는 독특한 종류의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다수의 감각 인상들과 현상을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대상의 지각 표상으로 종합하는 일 이상의 것, 개인의 경험을 구성하는 다수의 동시적이고도 계기적인 표상들의 상호 관계가 문제되고 있다. 칸트가 초월적 통각의 활동을 “나는 사고한다”에 의해 표상들을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라 설명한 것을 고려하면, “하나의 경험”, “의식의 시종일관된 통일”이 가능하려면 “나는 사고한다.”의 작용이 모든 표상들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나는 사고한다.”의 활동이 개별 주체에 의해 일어난 모든 일차적 차원의 사고 활동들을 연결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을 보다 명료화하기 위해, “나는 사고한다.”의 틀을 두 유형으로 나누어 생각해보자.

의 형식이기 때문에, 공간상에 있는 대상이나 현상들은 인식 주관 안에 있는 표상이란 의미에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초월적인 의미의 “외부대상”은 우리의 감성적 조건에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사물 자체의 다른 표현이다.

27) KrV A116, B133.

28) KrV A111.

29) KrV A111.

30) KrV A112.

- A: 나는 x를 사고한다. 그리고 나는 y를 사고한다. 그리고 나는 z를 사고한다.
 B: 나는 내가 x를 사고하고 내가 y를 사고하고 내가 z를 사고한다는 것을 사고한다.

A와 B는 모두 “나는 사고한다.”라는 틀을 가지고 있고 B는 A에 상응하는 사고이다. 그런데 A의 경우에는 x를 사고하는 나와 y를 사고하는 나, z를 사고하는 나가 모두 동일한 나라는 것이 보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B는 x, y, z를 사고하는 나가 동일한 나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B가 가능하지 않다면, A에서 각각의 나를 하나의 동일한 주체를 예화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B(모든 일차적인 사고들 전체를 연결하는 하나의 종합적인 사고)가 하나의 경험을 위해 필요하다. 그리고 B가 바로 초월적 통각을 형식화한 것이다³¹⁾.

31) 헨리히의 통각 해석에 따르면 일련의 심적 상태들에서 인간은 자신의 수적 동일성에 대한 확실한 의식을 가진다. 헨리히는 자기 동일성에 대한 선험적이고 필연적인 인식을 칸트의 이론에서 찾고자 하며, 『순수이성비판』의 A113, A116, A118 부분을 근거로, 칸트에서 자기동일성의 의식은 데카르트가 코기토에 부여한 종류의 확실성을 갖고 있다고 해석한다(Henrich (1976), p. 187 이하). 헨리히에 따르면 표상적 상태들에서 개인의 동일성은 표상들을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규제하는 선험적인 전제이다. 다시 말해 헨리히는 칸트의 논증을 경험의 객관성을 증명하기 위한 데카르트식의 논증으로 파악하고, 경험의 객관성이 주체의 인격적 동일성에 대한 앎에서 귀결된 것이라 해석한다. 다시 말해 주체의 인격적 동일성에 대한 앎에 특권적인 위상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헨리히의 해석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로 칸트는 주체의 인격적 동일성에 대한 앎을 인정하지 않았다. 헨리히의 오류는 자아 동일성에 대한 선험적 의식을 구체적인 개별자로서의 나의 동일성에 대한 선험적 인식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했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칸트는 수적 동일성에 대한 선험적 표상을 인정한 것이지, 우리가 수적으로 동일하다는 선험적 인식을 주장한 것이 아니다. 헨리히의 혼란은 칸트가 자아의 수적 동일성에 대해 말할 때 주체가 사고의 동일성에 대해 의식함을 말한 것을 인격의 동일성에 대해 말한 것으로 혼동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둘째로 칸트는 - 헨리히의 해석과 달리- 주체의 인격적 동일성 의식이 특권적인 지위를 가진다고 보지 않았다. 헨리히의 해석은 칸트의 통각 이론에서 피히테의 자아이론과의 연속성을 발견하고자 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일지 모른다. 칸트의 주장은 그저 주체의 개별적 통일성에 대한 객관적인 단언들이 경험의 객관적 통일성을 가능하게 하는 보편타당한 조건에 부합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IV. 통각의 분석적 통일과 종합적 통일의 관계

지금까지는 대상 인식에서 “초월적 통각”의 기본 기능을 해설했다. 이제부터는 대상 인식에서 자아의 동일성 의식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하는 B판의 §16부분을 검토하겠다.

1. “<나는 사고한다>는 나의 모든 표상에 수반할 수밖에 없다.”

『순수이성비판』의 §16에서 칸트는 “나는 사고한다Ich denke”가 나의 모든 표상들에 수반되어야만 한다는 테제를 제시한다.

“<나는 사고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표상에 수반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전혀 생각될 수 없는 것 — 그것은 표상될 수 없거나 적어도 나에게서는 아무 것도 아닌데 — 이 나에게서 표상되는 셈이 될 터이니 말이다.”³²⁾

위 인용문에서 칸트는 어떤 표상을 나의 표상이라고 의미 있게 말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어떤 표상이 나의 표상일 수 있는 것은 그 표상들에 “나는 사고한다.”가 수반될 수 있다고 생각될 때이다.³³⁾ 이는

그리고 그 논거는 그저, 나의 의식에 귀속된 일련의 표상들은 어떤 하나의 (객관적) 의식을 위한 조건들에 부합해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KrV B132)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초월적 통각 이론에서는 개인의 인격적 동일성이 주체화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초월적 영역에서 문제되고 있는 자아의식의 통일성과 동일성은 그저 형식적인 통일성이자 수적 동일성이고, 특수한 객관적인 자아의 통일성이 아니다.

32) KrV B131~2.

33) 스트로슨은 이 테제를 <표상들을 자기동일성의 척도 없이 나에게로 귀속시킵 self-ascription of the representations without any criterion for self-identity>으로 이해한다. 스트로슨은 위 인용문 부분을 해설하면서 다음과

어떤 표상이 나에게 무언가를 표상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나의 표상으로 사고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이는 우리의 직관과 잘 부합한다. 분명 내가 나의 경험이라고 간주하는 과거의 심적 사건들과 어떤 심적 사건이 (지각들을 나의 경험으로 만들어주는) 특정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그 사건은 나의 경험으로 헤아려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몇몇 연구자들은 위의 테제(“나는 사고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표상에 수반할 수밖에 없다.)를, 인식하는 주관이 인식 순간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사고해야 한다는 심리학적 요구로 해석한다. 그러나 칸트의 테제는 그러한 심리학적 요구를 뜻하지 않는다. 이 테제는 대상인식의 선형적 조건이라는 위상을 가지며, 따라서 인식적 가치를 가진 표상들에 대한 것이다. 칸트의 생각은, 어떤 표상들이 인식적인 가치를 가지려면 그 표상들에는 “나는 사고한다.”가 수반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만약 표상들이 나에게 의해서 표현된 인식판단에서 하나의 대상 개념으로 결합될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다면, 그 표상들은 나의 표상일 수 있다.

같이 설명한다. “[칸트에 따르면] 경험의 주체로서 한 사람이 지금 혹은 직접적으로 기억된 의식의 상태를 자기 자신에게 귀속시킬 때, 그 사람이 그 경험의 주체를 지시하기 위해 <나>라는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자아의 동일성을 판정할 아무런 기준이 사용되지 않는다.”(Strawson (1975), p. 165.)

한편 버넷은 스트로슨의 해석에 반대하면서, 내가 <나는 T에서 F이다>라는 기억에 의존한 판단을 내릴 때, 나는 t에서 F가 누구인지에 대해 틀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Bunnet (1974), p. 100). 버넷은 '틀릴 수 없음'을 주장한 스트로슨과 달리, '틀릴 수 있음'을 주장한다. 다시 말해 나는 지금 혹은 직접 기억된 의식의 상태를 나에게 귀속시킬 때 틀릴 수 있다.

스트로슨과 버넷의 해석은, 칸트가 초월적 연역 전체에서 표상을 내게 귀속시키는 일이 틀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스트로슨은 의식의 상태를 자기 자신에게 귀속시킬 때 자아의 동일성에 대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스트로슨에 따르면 그런 기준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칸트에서는 주체가 의식의 상태들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데 틀릴 수 없다고 추론한다. 하지만 해당 부분에서 칸트는 그러한 판단이 옳바를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그것이 틀릴 수 없다고 주장한 적도 없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의식의 상태를 우리 자신에게 귀속시킬 때 의거할 척도가 없다는 사실에서, 모든 귀속이 옳바른 것이 틀림없다는 추론은 결코 칸트의 텍스트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 칸트는 그저 의식의 상태를 내게 귀속시킬 때 내리는 판단들이 가능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조건들에 대해 탐구할 뿐이다.

거칠게 표현해서 칸트가 위의 테제를 말할 때 염두에 둔 것은 이런 것이다. 말하고, 기억하고 사고할 때 나는 또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기억하기, 사고하기라는 것을 내가 의도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한다. 그리고 나는 또한 내가 이런 활동을 앞선 활동의 주체와 동일한 주체에게 귀속시키고 있다는 것을 자각한다. 다시 말해 “S는 P이다.”라는 단언은 내가 만약 내가 단언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나의 단언이 아니다. 시간상에서의 지속은, 의식적인 활동에서 자기의 지속성을 자각하는 하나의 지속적인 경험적 주체가 없다면 불가능하다. 통각의 원리는 이러한 자각이 의식적인 지각하기, 기억하기, 사고하기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라는 것을 함축한다. 예컨대 내가 내게 다가오는 낯익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려 할 때, 나는 “나는 회상한다.”라는 이차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도 내가 회상 활동을 한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이 테제는 또한 주관이 의식할 수 없는 표상 또는 정신적 사태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³⁴⁾ 덧붙여 이 테제는 각 표상들을 분석하여 “나는 사고한다.”라는 표상을 찾을 수 있을 때만 그 표상이 나의 표상이 보증된다는 주장도 함축하지 않는다.

이 테제에 대해 제기된 여러 논란들을 검토하는 것보다는 칸트가 이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는 것이 더 생산적일 듯하다.

34) 덧붙여 칸트에 따르면 모든 수반 의식이 그 자체로 <나는 사고한다>라는 의식은 아니다. 주관적이고 경험적 인식, 경험적 통각의 경우 아무런 순수한 종합도 의식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의식은 “그 자체로는 산만하고 주관의 동일성과 관련맺음이 없기” 때문이다.(KrV B133)

유사한 맥락에서 클레메는 칸트에서 표상을 가진다는 말을 두 의미로 구분해서 사용하자고 제안한다.(Klemme (1996)) 강한 의미에서 표상을 가진다는 것은, 그 표상이 인식 판단에서 표현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약한 의미에서는 표상은 “마음의 변양”을 뜻하며 오직 시간의 형식적 조건 하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 첫 번째 의미의 표상은 객관적이며, 표상들이 판단에서 결합되고, <나는 사고한다>의 행위로 표현되는 통일 아래에서 있다. 두 번째 의미의 표상은 주관적이며, 그것은 표상들의 결합이 있지만 보편타당성 요구를 할 수 없는 지각 판단의 경우에서 사용된다.

필자가 보기에 초월적 연역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16의 독특성에 충분히 주목하지 못했다. §16의 논증의 핵심 주장은 잡다에 대한 선협적인 종합에 의해서만 통각하는 주관의 동일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칸트는 이에 대해 주체의 동일성에 대한 의식은 “오직 내가 한 표상을 다른 표상과 결합시키고, 그것들의 종합을 의식할 때만” 가능하다고 설명한다³⁵⁾.

그런데 칸트의 인식론에서는 자아의 동일성 의식을 증명하는 일이 다른 철학 이론들에 비해 더 까다롭다. 칸트의 모델에서는 <나>라는 지성적인 단순 실체가 존재하여 나의 표상들이 이 하나의 동일하며 지속하는 나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칸트에서는 단순실체로서의 <나>의 존재론적 필연성은 어떤 방식으로든 보장될 수 없다. 인식자는 내감에 의해 전변하는 상태에 대한 표상만을 얻을 뿐이고, ‘자신의 안에서’ 어떤 지속하는 것을 의식할 수 없으며, 그 결과 “내가 존재하는 바 그대로의 나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식도 가질 수 없”³⁶⁾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칸트에서는 내가 표상의 내용을 분석해서 어떤 경험을 나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공통적인 표지를 발견할 수도 없다.

그 결과 칸트에서 자기의식의 통일성은 형식적 측면에서 의식이 하나라는 뜻일 뿐이다. 경험들은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의 경험인 한에서 하나의 계열을 이룬다. 나의 경험들은 그것들이 나의 경험인 한에서만, 즉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감각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한 혹은 말할 수 있는 한에서만 하나의 계열을 형성한다. 그렇다면 칸트의 인식론에서 자아의 동일성 의식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내가 매순간 표상을 나에게 귀속시킬 때 어떻게 나의 동일성을 표상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려면, 하나의 통일적인

35) 앞서 언급한 바처럼 이는 흄에 대한 반론이기도 하다. 흄의 이론은 어떻게 나의 다양한 표상들이, 그 표상들을 의식하는 동시에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활동에서 매번 동일한 주체에게 속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없다. 물론 흄도 서로 다른 표상들을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의식적인 자아의 동일성을 부인하진 않았지만, 흄의 이론에서는 자아의 동일성을 보증할 수 없다.

36) KrV B157.

의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칸트의 전략은 서로 다른 표상들이 하나의 의식에 속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2. 자아의 동일성 의식과 대상의 종합적 통일성 의식이 맺는 관계

그런데 칸트에 따르면 “주체의 동일성”³⁷⁾은 “나는 사고한다”가 개별 표상들에 수반되는 기능만으로 수립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표상들에 부여된 통일성에 대한 의식이 필요하다. “나의 표상들”에 통일을 부여하는 활동에 대한 의식(A)과, 표상할 때 자아의 동일성에 대한 의식(B)을 칸트는 통각의 종합적 통일(A)과 통각의 분석적 통일(B)이라 부른다. 따라서 통각의 분석적 통일과 종합적 통일이 맺는 관계를 보이면, 대상 인식에서 자아의 동일성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할 수 있다. 칸트의 논증은 아래와 같다.

“①직관에 주어진 잡다에 대한 통각의 이 일관된 동일성은 표상들의 종합을 포함하고, 오로지 이 **[표상들의] 종합의 의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②왜냐하면 서로 다른 여러 표상들에 수반하는 경험적 의식은 그 자체로 분산된 것이어서, 주관의 동일성과 관계맺음이 없기 때문이다. ③그러므로 이 관계맺음-주관의 동일성과의 관계맺음은 내가 각각의 표상에 의식을 가지고 수반하는 것으로써는 아직 생기지 않고, 내가 한 표상에 다른 표상을 덧붙이고, **그것들의 종합을 의식함**으로써 비로소 생기는 것이다. ④그러므로 내가 주어진 **표상들의 잡다를 한 의식에서 결합**할 수 있음으로써만 내가 이 표상들에서 의식의 동일성을 스스로 표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⑤다시 말해 통각의 분석적 통일은 어떤 **종합적 통일**을 전제로 해서만 가능하다. ⑥직관에 주어진 이 표상들이 모두 나에게 속한다는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표상들을 하나의 자기의식 안에서 결합하거나 또는 적어도 자기의식**

37) KrV B133.

안에서 결합할 수 있음을 뜻한다. ⑦그리고 이런 생각 자체가 아직 표상들의 종합적 의식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생각은 이 종합의 가능성을 전제하는 것이다. ⑧다시 말해 내가 **표상들의 잡다를 한 의식에서 파악할 수 있음**으로써만, 나는 이 표상들 모두를 나의 표상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⑨그렇지 않다면 나는 내가 의식하는 표상들의 수효만큼의 다채 다양한 자기를 갖게 될 터이기 때문이다. ⑩따라서 **직관들의 잡다의 종합적 통일에 대한 의식**은, 선형적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나의 모든 일정한 사고에 선형적으로 선행하는 **통각의 동일성**의 근거 자체이다.”³⁸⁾

필자는 인용문에서 통각의 분석적 통일을 가리키는 표현들은 밑줄로, 통각의 종합적 통일을 가리키는 표현들은 굵게 표시했다. 이 인용문을 파악하기 위한 핵심 개념인 “통각의 분석적 통일”은 “표상들에서 의식의 동일성”³⁹⁾을 뜻하고, “통각의 종합적 통일”은 주어진 잡다한 표상들이 하나의 의식에서 결합된 것의 표상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때 “통각의 분석적 통일”에서 “분석적 통일”이라는 표현은 자기의식이 분석적으로 하나임을, “종합적 통일”은 잡다가 하나의 의식에서 종합되었다는 것을 뜻한다.⁴⁰⁾ 이해의 편의를 위해 이를 기호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M을 심적 상태라고 할 때, 경험의 종합을 가능하게 하는 의식의 통일성을 뜻하는 “통각의 종합적 통일”은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38) KrV B133~4.

39) KrV B133.

40)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A79=B105에 제시된 분석적/종합적 통일의 구분과 B133 이하에 제시된 통각의 분석적 통일과 종합적 통일의 구분을 결합해서 읽어야 할지 아닐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A79=B104 이하에 따르면 분석적 통일은 지성 기능이 “하나의 판단 안에 있는 상이한 표상들”에 부여한 것이다. 이 분석적인 통일에 의해서 지성은 “개념들 안에서 ... 판단의 논리적 형식을 생산한다.”(KrV A79=B104) 종합적 통일 혹은 “직관에서 잡다의 종합적 통일”은, 지성 기능이 “하나의 직관 안에서 상이한 표상들을 종합할 때” 부여하는 것이며, 이 종합적 통일에 의해 지성은 표상은 초월적 내용“을 부여하게 된다. 한편 통각의 분석적 통일은, “표상들에서 의식의 동일성”(KrV B133)을 뜻한다. 통각의 종합적 통일은, 주어진 표상들의 잡다가 하나의 의식에서 결합된 것[결합하는 것]의 표상이다. [지성기능의] 분석적/종합적 통일과 통각의 분석적/종합적 통일이 맺고 있는 관계는 별도의 한 논문을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통각의 종합적 통일: 나는 M1와 M2라고 (즉 M1과 M2가 종합되었다고) 사고한다.

한편 “표상들에서 의식의 동일성”⁴¹⁾을 뜻하는 “통각의 분석적 통일”은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통각의 분석적 통일: M1을 사고하는 나 = M2를 사고하는 나⁴²⁾

다시 인용문으로 돌아오자. 이 인용문 전체는 첫 번째 문장(“직관에 주어진 잡다에 대한 통각의 이 일관된 동일성은 표상들의 종합을 포함하고, 오로지 이 종합의 의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을 결론으로 하는 논증이다. 첫 번째 문장은 쉽표를 기준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문장의 두 번째 부분(“직관에 주어진 잡다에 대한 통각의 이 일관된 동일성은 … 오로지 이 종합의 의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과 다섯 번째 문장(“다시 말해 통각의 분석적 통일은 어떤 종합적 통일을 전제로 해서만 가능하다.”)은 동일한 내용이므로, 논증 전체를 이해하려면 첫 번째 문장의 두 번째 부분과 다섯 번째 문장이 무슨 뜻인지를 파악해야한다. 첫 번째 문장의 주어(“잡다에 대한 통각의 이 일관된 동일성”)는 <나는 사고한다>의 동일성에 대한 의식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바꿔 쓸 수 있다.

①과 ⑤에서

C: <나는 사고한다>의 동일성에 대한 의식은 표상들의 종합의 의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41) KrV B133

42) 이 기호화는 파월Thomas C. Powell(Powell 1990)을 따랐다.

그런데 칸트에서 “종합”은 종합 행위 자체를 뜻할 수도 있고, 종합의 결과를 뜻할 수도 있기 때문에, C의 “종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엘리슨 Henry E. Allison은 문장 ①에서 (따라서 필자가 제시한 위의 명제 C에서) 제시된 “종합”을 종합 활동의 결과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³⁾. 만약 우리가 “종합”을 종합하는 활동으로 이해할 경우, 이 명제는 잡다한 표상들에서 정신의 동일성에 대한 의식(통각)이 정신의 통일시키는 활동에 대한 의식에 의존한다는 주장이 되는데, 심리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모든 종합 활동을 의식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필자 또한 엘리슨과 같은 이유에서 “종합”을 종합 활동의 결과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 해석에 따를 경우 칸트의 주장은 <사고하는 주체의 동일성에 대한 의식은 표상들이 종합된 것임을 의식함으로써만 가능하다.>가 된다.

엘리슨에 따르면 문장 ①은 주체가 자신의 동일성을 반성적으로 인지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주체가 <나는 a를 사고한다>의 <나>와, <나는 b를 사고한다>의 <나>의 동일성을 인지하는 것은, 그가 <나는 a+b를 사고한다>라는 생각에서 a와 b의 결합을 반성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⁴⁴⁾. 그런데 자기의식에 대한 이러한 반성적인 이론은 칸트의 생각이라고 보기 어렵다. 만약 <나는 a를 사고한다>, <나는 b를 사고한다>, <나는 a+b를 사고한다>가 있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보다 첫 번째와 세 번째 혹은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 <나>의 동일성을 상징할 근거가 더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표상 a를, 다른 사람이 표상 b를 가졌을 때, 또 다른 사람이 a와 b의 종합(a+b)을 의식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결합된 표상들을 단순히 반성하는 것으로는 동일한 나에 대한 표상이 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없이 표상들에서 결합하는 자의 동일성을 확보하려면, 결합 자체에서 부분 표상들이 필연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43) Allison (2004), pp. 169~170.

44) Allison (2004), p. 170.

그렇다면 칸트가 문장 C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를 사례를 통해 생각해보자⁴⁵⁾.

예를 들어 내가 내 앞에 있는 책을 보고 난 뒤 모니터를 보았다고 하자. 초월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경험은 책을 표상할 때의 나와 모니터를 표상할 때 내가 동일한 나여야만 가능하다. 만약 각각의 표상에서 내가 동일하지 않다면, 각각의 표상은 흩어져 “책 앞에 모니터가 있다”라는 결합을 만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의 경험을 초월적으로 검토할 때 전체 개별 표상들이 질서를 맺고 있는 “하나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조건들을 설명하려면, 표상들을 결합하는 하나의 동일한 나를 하나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선형적 조건으로 전제해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바, 칸트에서는 나의 동일성에 대한 의식은 어느 시기 t_1 에서의 나와 다른 시기 t_2 에서의 나 사이의 동일성(나 $t_1 =$ 나 t_2)에 대한 의식일 수 없다. 내감에 의해서는 나의 전변하는 심적 상태만 주어질 뿐이며 <나>로 간주될 수 있는 동일하고 지속적인 실체에 대한 표상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동일성은 책을 표상할 때의 나와, 모니터를 표상할 때의 내가 동일하다는 의식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있을 것인데, 각 표상에서의 나의 동일성이 내가 가진 표상의 내용을 분석해서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동일성에 대한 의식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

칸트에 따르면 “표상들이 하나의 의식 안에 결합될 수 있어야” 나는 그 종합을 의식함으로써 비로소 나의 동일성을 의식할 수 있다. 바꿔 말해 “책 앞에 모니터가 있다”라는 종합이 가능해야만, 표상들이 한 의식에서 통일되어 하나의 세계가 내 주위에 펼쳐져 있어야만, 그 종합/통일을 의식함(나는 책 앞에 모니터가 있다고 생각한다.)으로써 각 표상들에서 나의 동일성에 대한 의식(나는 <책의 표상에서 나 = 모니터의 표상에서 나>라고 생각한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⁴⁶⁾.

45) 이 사례는 나카무라 요시미치, 김윤희 역 (2014), pp. 298~299의 사례를 재구성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통각의 분석적 통일”, 즉 각 표상에서의 자아의 동일성에 대한 의식과 “통각의 종합적 통일”, 표상들이 하나의 의식에서 종합되어 있다는 의식의 관계가 해명되었다. 칸트가 “통각의 분석적 통일은 어떤 종합적 통일을 전제한다.”⁴⁷⁾는 말로 표현하려 한 것은, 자아의 동일성 의식이 나에게 주어지는 잡다가 일정한 방식으로 통일된다는 것에 대한 의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오직 그 통일 작용에 의해서만 자아의 동일성 의식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⁴⁸⁾.

이제까지의 해석을 토대로, 통각의 분석적 통일과 종합적 통일의 관계에 대한 매우 잘 알려진 해석인 키처Patricia Kitcher의 해석이 가진 문제점을 간단히 지적하겠다. 키처는 통각의 종합적 통일이 분석적 통일의 전제가 된다는 칸트의 언급⁴⁹⁾과 “결합은 잡다의 종합적 통일의 표상”⁵⁰⁾에 주목하여, 어떤 결합이 대상 인식을 가능하게 하려면 그 결합이 특정한 방식으로 일어나

46) 물론 이 때 (통각의) 종합적 통일은 여러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다. 종합적 통일은 다수의 감각인상을 특정 순간에 하나의 대상에 대한 지각 표상으로 종합하는 것일 수 있다. (컵의 옆면, 윗면, 아랫면에 대한 표상들을 하나의 컵 표상으로 종합하는 경우) 혹은 위의 사례처럼 종합은 하나의 공간에서 여러 대상들을 순차적으로 지각하는 경험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노트북 표상과 책 표상을 결합하여 노트북 옆에 책이 놓여 있다고 종합하는 경우) 또는 한 개인의 경험을 구성하는 수많은 동시적이면서 계기적인 표상들의 종합도 가능하다. 따라서 통각의 분석적 통일 또한 위에 언급된 종합적 통일의 각 차원에서 가능하다.

47) KrV B133.

48)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서 문제되고 있는 이 초월적인 자기의식이 인격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칸트는 나의 의식에서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칸트가 주장한 것은, 자아가 수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표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것이 실제로 모든 시간상에서 수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주장하진 않았다. 나는 내가 누구이며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와 관련해서는 오류를 범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자기 의식적이고, 내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나 자신을 동일한 주체로 표상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는 오류를 범할 수 없다. 칸트는 초월적인 자기의식이 대상에 대한 모든 의식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 초월적 자기의식 자체가 인격의 동일성 문제라고는 보지 않는다.

49) KrV B133

50) KrV B130.

야 하고 주체가 그 결합 활동 자체를 표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⁵¹⁾. 다시 말해 키처는 칸트의 통각을 표상행위 자체에 대한 이차적인 사고로 이해한다. 통각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칸트의 초월철학이 인식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잘 반영한다. 하지만 위의 해석에서 밝혀진 바대로, “통각의 종합적 통일”은 인식자가 표상들의 종합 작용 자체를 이차적으로 자각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칸트가 강조하는 것은 종합하는 활동 자체가 규칙을 따르는 의식적인 통일 작용이라는 것이다. 키처의 해석은 종합작용에 대한 이차적 자각을 대상인식이 가능하기 위해 실제로 따라야 할 심리적 조건으로 만드는 위험이 있다. 칸트가 강조하는 것은 자아의 사고하는 행위가 수용되어 재생된 표상들의 집합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사고하는 것은 규칙을 따르는 것이고, 규칙을 따른다는 것은 그저 심적 상태들(혹은 이미지들)의 집합들로 환원될 수 없다. 또한 규칙 따르기는 해당 규칙들을 명시적으로 인지해서 의식적으로 따르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통각의 통일이 대상 인식의 선행적 조건이라고 할 때, 이는 인식자의 인식활동에 대한 메타적 기술로 이해되어야 한다. 표상들이 다른 표상들과 함께 하나의 의식에 속해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는 일이 대상 인식이 가능하기 위해 인식자가 따라야만 하는 심리적 규칙인 것은 아니다.

51) Kitcher (2000), pp. 142~3.

V. 결론

“자연이 통각이라는 우리의 주관적인 근거에 따르고, 심지어 합법칙성에서 그것에 의존해야 한다는 말은, 어쩌면 무척 불합리하고 의아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다름 아니라 현상의 총괄이며, 사물 자체가 아니라 다만 마음의 표상들의 집합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자연을 우리의 모든 인식의 근본 능력, 즉 초월적 통각에서, 오직 그 때문에 모든 가능한 경험의 객관 즉 자연이라고 불릴 수 있게 되는 통일성 안에서 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⁵²⁾

칸트는 <나는 사고한다>가 통각의 통일 작용을 표현한 것이라 보았다. 이 말은 일상적인 개별 대상이나 사태에 대한 일차적 의식이 인식론적으로 볼 때 예외 없이 <나는 … 라고 의식한다/사고한다>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칸트에서 통각이 실제적인 자기의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통각은 자기의식이나 의식을 가능하게 하는 주관적 구조이면서, 대상 관련적 의식을 근거지우는 필수적인 기능이다.

칸트가 통각을 “자기의식Selbstbewusstsein”으로 표현했을 때, 그는 통각이 대상 의식에 대한 메타적인 의식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각 개념은 칸트의 초월철학적 기획의 근본 특성을 잘 드러낸다. 자기의식이라는 표현이 통각을 가리키면, 자기의식은 외부 대상과의 관련성이 없는 주관의 상태를 반성적으로 의식한 것을 뜻하지 않는다. 자기의식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마음이 대상을 의식할 때 반드시 자기 지시성을 가진다는 것을 가리킨다. 자기의식으로서 통각 개념은 대상인식을 가능하게 하면서 그 자체로는 인식 대상이 되지 않는, 주체의 인식적 구조를 가리킨다. 이런 의미에서 칸트의 통각은 나라는 개별적 실체에 대한 의식이 아니며, 모든 대상 세계에 대한 의식 속에 내재해있는 형식적인 구조를 뜻한다.

52) KrV A114.

통각의 분석적 통일이 종합적 통일을 전제한다는 말로 칸트가 설명하려 한 것은, 인식하는 의식의 동일성과 인식된 대상의 통일성이 결국 마음의 동일한 활동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의식의 통일성은, 마음이 하나의 인식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결합하는 기능의 동일성을 의식할 수 있는 한에서 가능하다. 다시 말해 인식에서 자기의 활동이 동일하고 하나라는 것을 자각함으로써, 즉 대상을 규정할 때 작동하는 활동이 하나이며 동일하다는 것을 자각함으로써, 마음은 대상의 통일성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동일성도 자각하게 된다. 인식대상의 통일성은, 인식하는 의식의 통일성에 의해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인식하는 주체의 통일성은, “인식하는” 의식인 한에서 표상들이 대상과 연관성을 가지는 한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과 대상에 대한 의식은 서로 독립된 사실이 아니라 서로 상호의존하는 조건들이다.

참고문헌

- 나카무라 요시미치, 김윤희 역 (2014), 『철학의 교과서』, 서울: 지식의 논리.
-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2014), 『순수이성비판 1』, 서울: 아카넷.
- Allison, Henry E. (2004), *Kant's Transcendental Idealism*,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Ameriks, Karl (2006), *Kant and the Historical Turn: Philosophy as Critical Interpret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unnet, Jonathan (1974), *Kant's Dialecti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icker, Georges (2004), *Kant's Theory of Knowledge: An Analytical Introd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H.R. Parkinson (1973), *Philosophical Writings of Leibniz* (ed.), London: J. M. Dent.
- Guyer, Paul (1987), *Kant and the Claim of Knowled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nrich, Dieter (1976), *Identität und Objektivität. Über Kants transzendente Deduktion*, Heidelberg: Carl Winter.
- _____ (1989), "The Identity of the Subject in the transcendental Deduction", in Eva Schaper/Wilhelm Vossenkuhl (ed.) *Reading Kant. New Perspectives on Transcendental Arguments and Critical Philosophy*, New York: Blackwell.
- Howell, Robert (1992), *Kant's Transcendental Deduction an Analysis of Main Themes in His Critical Philosophy*, Dordrecht: Springer.
- Kant, Immanuel (1976), *Kritik der reinen Vernunft, nach der ersten und zweiten Originial-Ausgabe neu herausgegeben von Raymund Schmidt*, Hamburg: Meiner Verlag.
- _____ (1900ff), *Gesammelte Schriften*, Pruessische Akademie der Wissenschaften (ed.), Berlin: Akademie Verlag.
- _____ *Metaphysik Mrongovius AA XXIX*
- _____ *Logik AA IX*
- _____ *Anthropologie in Pragmatischer Hinsicht AA VII*
- Keller, Pierre (1998), *Kant and the Demands of Self-Consciousne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tcher, Patricia (1990), *Kant's Transcendental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11), *Kant's Think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lemme, Heiner (1996), *Kants Philosophie des Subjekts. Systematische und entwicklungsgeschichtliche Untersuchungen zum Verhältnis von Selbstbewußtsein und Selbsterkenntnis*, Hamburg: Meiner Verlag.
- Powell, C. Thomas (1990), *Kant's Theory of Self-Consciousnes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osefeldt, Tobias (2000), *Das logische Ich. Kant über den Gehalt des Begriffes von sich selbst*, Berlin/Wien: Philo.
- Strawson, P.F. (1975), *The Bounds of Sense: An Essay on Kant's Critique of Pure Reason*, London/New York: Routledge.
- Sturma, Dieter (1985), *Kant über Selbstbewusstsein*, Hildesheim/New York: Olms.
- Van Cleve, James (1999), *Problems from Ka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Von dem Bewusstsein der Identität von sich Selbst
in der kantischen Theorie der transzendentalen
Apperzeption
(On the Consciousness of Self-Identity in the Kantian
Theory of Transcendental Apperception)

Kang, Ji-Young

Im Mittelpunkt der vorliegenden Untersuchung steht die Frage, wie das Bewusstsein der Identität von sich Selbst im Rahmen der kantischen kritischen Erkenntnistheorie möglich ist. Zur Beantwortung dieser Frage nimmt die Untersuchung ihren Ausgang von der bislang noch nicht befriedigend geklärte These Kants, die aus dem Seite 133 der B-Auflage der KrV entnommen wird: Kant zufolge ist nur unter der Voraussetzung der synthetischen Einheit der Apperzeption die analytische Einheit der Apperzeption möglich.(Vgl. KrV B133~4) Anders ausgedrückt, Kant meint, ich kann mir insofern "die Identität des Bewusstseins in [den] Vorstellungen selbst"(KrV B133) vorstellen, wenn mir die Verbindung eines "Mannigfaltigen gegebener Vorstellungen in einem Bewusstsein"(KrV B133) bewusst wird. Durch der eingehenden Auseinandersetzung mit dieser These wird aufgezeigt, in welchem Verhältnis das Bewusstsein der Identität von sich Selbst mit dem Bewusstsein der Einheit des Gegenstandes steht. Dabei wird auch geklärt, dass die numerische wie auch durchgängige Identität des Selbst ein Resultat der Funktion der gegenständlichen Synthesis von Erscheinungen nach Begriffen ist.

【Keywords】 Immanuel Kant, Transcendental Apperception, Identity of Self, Self-Consciousness, Synthetic Unity of Apperception, Analytic Unity of Apperception

논문 투고일: 2019. 09. 19

심사 완료일: 2019. 10. 14

게재 확정일: 2019. 10. 14

